

단기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승재 (프랜즈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황보운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교육을 받은 전과 수료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통제 위치, 위험감수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을 다루어 왔는데, 여기에 새로운 심리적인 특성인 창의성을 추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하여 서울과 대구의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실행기관 중 임의의 기관을 선정하여 예비창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검증과 ANCOVA를 실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창업교육전과 창업교육 후를 비교하여 볼 때 성취욕구와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은 향상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제 위치와 위험 감수 성향은 창업교육 전 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그리고 창업교육 횟수에 따라 창업교육 전후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예비창업자, 심리적 특성, 창의성

* 제1저자, (주)프랜즈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tmdwodl83@naver.com

** 교신저자,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yunhwangbo@empal.com

1. 서론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Lehman Brothers Holdings)의 파산’으로 인해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노력에도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가거나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규인력채용이 줄어들고 미취업자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실직자, 직장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창업열기가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로 인해 1997년 11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 기금) 외환위기 이후, 다시 한 번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또 사람들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일을 찾고, 만들기 위해서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창업의 관심과 더불어 창업교육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시점에 있다. 창업에 관련된 연구로는 창업자의 특성이나 기업가 정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성과나 성과에 관한 연구 등 그 주제가 다양하며 세분화되는 형태로 연구되어져 왔으며, 또한 그와 같은 성과와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창업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특성은 창업기업의 성공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지 않으나 여전히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동안 결과에 의하면 성공적인 창업기업은 창업자의 특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창업자의 나이와 성격, 경험, 교육 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져 왔다(Vesper, 198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성취욕구, 위험 감수성, 통제위치, 모호함에 대한 인내, 자율성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다(Timmons, 1994).

창업을 성과를 높이기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1~2개월 내외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위한 단기 창업교육에 집중하여 왔다. 또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에서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또한 대학 등에서 보다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위해서 1990년대 말부터 한국과학기술원, 숭실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호서대학교, 건국

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창업관련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교육을 받은 전과 수료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선행연구에서 통제의 위치, 위험감수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을 주요 변수로 다루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심리적인 특성인 창의성을 추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 단기교육프로그램인 성공창업패키지에 참가하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업자들의 특성과 창업교육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응표본 T분석과 ANCOVA를 하였다.

II. 창업교육의 현황 및 심리적 특성

2.1 국내 창업교육의 역사 및 현황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일부 대학에서 ‘창업’을 정규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으나 창업교육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다. IMF체제 이후 정부의 지원에 의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개설되면서 창업은 관심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창업교육은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교육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와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1개월 이내의 예비창업자를 위한 단기 창업교육에 집중하여 왔다. 또한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에서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대학에서 보다 체계적인 창업교육은 1990년대 말부터 한국과학기술원, 숭실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호서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창업관련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지만, 집중적인 창업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는 청소년 창업교육을 위해 2001년 12월 ‘비즈쿨

길라잡이'를 개발, 2002년부터 BizCool을 운영하는 등 창업교육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즈니스를 배운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초 개념인 기업 및 기업가에 대한 이해, 창업과 경영, 현장체험 등을 통한 체계적인 비즈니스 교육프로그램이다.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유도하여 청소년들의 기업가적 자질과 역량을 고취시킴으로써 이들을 미래의 경제역군으로 양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김정연, 2008).

2.2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기업성과는 최고 경영자의 개인적 특성, 기업 내외부의 환경특성, 조직구조 상의 특성 등 많은 요인들과 상호 관련성이 있다(Low & Macmillan, 1988; Vesper, 1980; Cooper & Gimeno, 1994). 특히 Barnard(1938)와 Selznich(1957)의 연구에 의하면, 최고 경영자들의 특성이 조직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의 최고 경영자의 심리적인 특성은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 위험감수성향(risk-taking intention),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모호성의 수용(ambiguity tolerance)과 같은 변수로 설명되며(황보윤, 2009),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originality)의 변수를 추가하여 본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2.2.1 통제의 위치

통제의 위치(locus of control)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어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통제위치가 내적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신뢰하며 운명, 행운 또는 영향력 있는 타인 같은 외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는다. 반면, 외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결과의 최우선적인 영향요소라는 신조를 거부한다.

자신의 행동 결과가 내적으로 통제되는지 아니면 외적으로 통제되는지에 관한 믿음(belief)을 나타내는 통제 위치는 창업과 관련된 개인특성 중 가장 널리 연구된 것 중 하나이다(Brockhaus, 1982).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 기술, 노력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외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해 스스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신이 하기에 따라 대부분의 일들이 달라진다는 믿음은 적극적 행동과 높은 성과를 유도할 것이다. 반면에 모든 일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위험을 피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나타낸다. 창업이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실패의 위험이 수반되고 거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맡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창업자는 통제 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어 자신의 주변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통제력을 믿지 않는 외적 통제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강한 창업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지우, 2000).

2.2.2 위험감수성향

위험감수성향은 의사결정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회를 취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보다 빨리 내리고 기꺼이 기회를 잡으려 하는 반면,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보다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위험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최근 창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들이 빠짐없이 위험감수 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나, 위험감수성향은 많은 학자들이 창업자 개인의 특성으로 인정을 하느냐를 놓고 문제의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Smith와 Miner(1983)은 위험회피가 저성장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보다 고 성장을 이끄는 기업가 사이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Begley와 Boyd(1987)은 과도하게 높은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중간 정도의 위험감수성향이 재무적 성과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떤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위험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창업자가 이러한 위험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얼마나 잘 조직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는 그 개인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창업 및 운영의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김완재, 2007).

2.2.3 성취욕구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의 현대적 의미는 Murray의 연구로부터 유래하는데, 그에 따르면 성취 욕구는 어떤 것들을 신속하고 가능한 잘 이행하려는 바람 또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또한 정화영(1996)은 성취욕구란 어려운 일을 달성 하려는

요구, 장애를 극복하여 높은 목표를 이룩하려는 욕구, 자신을 몰아붙여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능가하고 싶은 욕구로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로 정의하고 있다.

성취 욕구는 창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기요소 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려 하고 목표를 제시하며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Steers(1975)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에 대한 만족도 및 성과와 성취욕구간의 연구에서 성취욕구가 높은 노동자일수록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더 만족하였으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은 성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창업자의 다른 여러 요소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기업가는 높은 자율성, 독립심, 인내심을 지니며 보조의 필요성과 순응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완재, 2007).

2.2.4 모호성의 수용

모호성의 수용(tolerance of ambiguity)이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의 정도를 말한다.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을 때 모호성을 지각하고, 새롭거나 복잡하거나 해결이 어려울 때 모호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모호성감수에 대한 인내는 애매한 상황을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반면, 모호성 감수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러한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Gasse(1982)는 성공적 창업자들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을 하나의 자극으로 받아들여 잘 극복한다고 하였다. Thomas & Dacid(1987) 역시 모호성감수에 대한 인내력이 동기부여 적으로 작용하면 기업가적인 성공을 촉진시킬 것이며, 창업가는 비창업가 보다 모호성의 감수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Behley & Boyd(1987)는 소규모 기업의 기업가와 경영자 사이의 모호성 인내도 차이를 조사한 결과, 기업가의 모호성 인내도가 경영자보다 높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Bunder(1962)는 모호함은 생소함, 복잡성 등에서 나오며, 모호함에 대한 수용력은 모호한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또한 모호함에 대한 인내 성향은 지각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의 정도를 말하는데(박영배·윤창석, 2001), Sexton & Bowman(1985)은 기업가들이 일반인들보다 모호함에 대한 인내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구언희, 2007).

2.2.5 창의성

창의성의 어원은 만들다(make)라는 의미의 라틴어 'creare'와 수행하다(fulfil)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krainein'에서 유래한 것이다. 창의성을 ‘창의적인 사람이 -을 만들다’ 라는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창의성을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만드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창의적인 개인이 생존에 대한 표현 또는 존재하는 방식(way of being)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piirto에 의하면 1964년의 Webster 사전에서는 '창의성(Creativity)'이란 단어는 목록에는 없으며 '창의적(creative)'이라고 하는 단어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하였다. 1988년에 개정된 Webster 사전에는 창의성이 ‘창의적인 능력 : 예술적이거나 지적인 발명’ 이라고 진술되어 있으며, 1990년의 Ixford 사전에는 “창의성”을 “창의적”이라는 형용사의 명사형으로 기술하여, “발명적이고 상상적, 창조 또는 창조할 수 있는”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창의성에 대한 개념은 문헌에 따라 학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성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창의성의 정의도 다양하다. 창의성에 대해서 Guilford(1967)는 창의성을 “인간의 지적, 정의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지적 요인은 지능 검사로 측정되기 어려우나 지능의 한 중요한 측면이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잠재력이고, 정의적인 요인은 창의적 행동을 발휘하게 하는 개인의 인성적, 기질적 특성이며, 학교 교육에서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Torrance(1996)는 “몇 가지 기술, 능력, 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 작용하는 것”을 창의성으로 보고, Sternberg(1994)도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새롭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다. 김영채(2000)는 협외의 창의성으로 Guilford(1950)의 발산적 사고와 같은 것으로 보고, 광의의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어떤 것을 생산해 내는 행동 또는 정신 과정을 말하고 있다. 정범모(2001)는 창의력은 새롭고 보람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힘, 이종록(2003)은 “창의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며, 인간생명의 근원이다. 창의성은 인간의 사고와 활동의 원동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창조의 본성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성질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서혜애(2002)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문제해결력 측면을 강조하면서, 창의성을 사회 문화적 맥락과 문제해결력에서 가치 있고 실현 가능한 독창적 사고나 산출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III. 모형설계 및 실증분석

3.1 연구 설계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위한 연구의 설계를 하였다.

예비창업자의 심리적인 특성이 창업교육(성공창업패키지)을 받음으로써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 그 변화에 개인의 특징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를 일으키는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설계를 하여 조사연구를 하였다.

비 학위 단기 창업교육인 성공창업 패키지에서 디자인 반, 브랜드스토리 반, 외식업 창업 반, 커피전문점(바리스타) 반, 컨설턴트 반, 학원 교습소반 등으로 나누어진 교육에 참가한 예비창업자들에게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연구 설문을 하여, 교육의 전과 후에 심리적 특성인 통제위치, 위험 감수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때, 개인의 특징에 따라 또 어떤 변화의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였다.

서울과 대구의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예비창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9월 1일부터 12월 05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다.

3.2 변수의 개념 정의 및 가설설정

3.2.1 변수의 개념 정의

창업교육은 크게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눈다. 비학위과정은 또 다시 장기 창업교육과 단기 창업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장기 창업과정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단위의 교육과정으로 대표적으로 기술창업패키지 교육이 있다. 단기 창업 교육 과정은 짧게는 2주 길게는 3달 정도의 기간의 교육과정으로 대표적으로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이 있다.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통제의 위치, 위험 감수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이 있다. 통제의 위치는 자신이 하기에 따라 대부분의 일들이 달라진다는 믿음은 적극적 행동과 높은 성과를 유도할 것이다. 반면에 모든 일이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록 위험을 피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나타낸다. 창업이 불

확실한 환경 속에서 실패의 위험이 수반되고 거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떠맡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창업자는 통제의 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내적 통제의 위치를 갖고 있어 자신의 주변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자신의 통제력을 믿지 않는 외적 통제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강한 창업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지우, 2000).

위험 감수 성향은 의사결정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회를 취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에서 차이를 보인다. 높은 위험감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보다 빨리 내리고 기꺼이 기회를 잡으려 하는 반면,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보다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위험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한다(김완재, 2007).

성취 욕구는 창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기요소 일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발전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려 하고 목표를 제시하며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김완재, 2007).

모호성의 수용이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인내의 정도를 말한다.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했을 때 모호성을 지각하고, 새롭거나 복잡하거나 해결이 어려울 때 모호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모호성감수에 대한 인내는 애매한 상황을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반면, 모호성 감수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러한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창의성의 어원은 만들다(make)라는 의미의 라틴어 'creare'와 수행하다(fulfil)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krainein'에서 유래한 것이다. 창의성을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다' 라는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창의성을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만드는 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창의적인 개인이 생존에 대한 표현 또는 존재하는 방식(way of being)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3.2.2 가설 설정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결과에 따라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교육이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설1. 창업교육을 통해서 심리적 특성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 1-1.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중 통제의 위치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 1-2.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중 위험감수 성향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 1-3.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중 성취 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1-4.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중 모호성의 수용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1-5. 예비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중 창의성에 욕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개인 특성의 변화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2-1.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통제 위치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위험감수 성향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성취 욕구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4.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모호성의 수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5.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연령에 따라 창의력의 변화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학력에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개인 특성의 변화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3-1.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학력에 따라서 통제 위치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학력에 따라 위험감수 성향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3.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학력에 따라 성취 욕구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학력에 따라 모호성의 수용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3-5.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학력에 따라 창의력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4.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개인 특성의 변화의 차이를 보일 것이다.

4-1.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 통제 위치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4-2.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 위험 감수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4-3.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 성취 욕구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4.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 모호성의 수용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 4-5.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창의력의 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IV. 분석결과

4.1 표본의 현황 및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구성은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의 성공창업패키지 교육과 대구 인재 개발원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과 교육 후로 나누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표본의 인구 통계적 분석

a. 성별 및 연령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응답자 168명 중 남자가 73명(43.5%)이고, 여자가 95명(56.5%)으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은 20대가 58명(34.5%)으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10대가 4명(2.4%)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예비 창업자의 성별 및 연령

구분	항목	예비 창업자 수	구성비(%)
성별	남	73	43.5
	여	95	56.5
연령	10대	4	2.4
	20대	58	34.5
	30대	46	27.4
	40대	33	19.6
	50대 이상	27	16.1
합계		168	100.0

b. 학력 및 결혼여부

학력은 고졸이 56명(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졸(39명, 23.2%), 전문대졸(35명, 20.8%), 대학원 이상(33명, 19.6%), 중졸이하(5명,

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예비 창업자의 학력

항목	예비 창업자 수	구성비(%)
중졸이하	5	3.0
고졸	56	33.3
전문대졸	35	20.8
대졸	39	23.2
대학원 이상	33	19.6
합계	168	100.0

그리고 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의 51.2%인 86명이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예비 창업자의 결혼 여부

항목	예비 창업자 수	구성비(%)
결혼	86	51.2
미혼	82	48.8
합계	168	100.0

나. 표본의 일반현황 분석

a. 표본의 창업교육 경험

질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현황은 창업교육을 참가한 168명의 응답자중 대부분인 116명(69.0%)이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은 52명(31%) 중 대부분이(38명, 72.9%) 1회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예비 창업자의 창업교육 경험과 횟수

구분	항목	예비 창업자 수	구성비(%)
창업교육	경험 유	52	31.0
	경험 무	116	69.0
횟수	1회	38	72.9
	2회	6	11.7
	3회	2	3.8
	4회	1	1.9
	5회 이상	5	9.7
합계		168	100.0

b. 표본의 창업준비 업종

질문에 응답한 응답자 중 제조업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는 10명(6.0%), 음식업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는 45명(26.0%), 도소매업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는 11명(6.5%), 서비스(점포형)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는 가장 많은 비중인 72명(42.9%)를 차지하고 있었다. 무점포 및 소호를 준비하는 응답자는 30명(17.9%)로 나타났다.

<표 5> 예비 창업자의 창업 준비 업종

항목	예비 창업자 수	구성비(%)
제조업	10	6.0
음식업	45	26.0
도소매업	11	6.5
서비스(점포형)	72	42.9
무점포 및 소호	30	17.9
합계	168	100.0

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기법은 내적 일치도를 의미하는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하는 것이다.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는 신뢰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가 .60이상이면 대체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표 6>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문항수	Cronbach's Alpha 계수	
심리적 특성	통제의 위치	7	0.788
	위험감수 성향	6	0.849
	성취욕구	7	0.803
	모호성의 수용	5	0.701
	창의력	6	0.624

통제의 위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이 0.788로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험감수 성향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이 0.849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취 욕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이 0.803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호성의 수용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48의 신

되도 수준을 볼 수 있다.

창의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24 의 신뢰도 수준을 볼 수 있다.

4.2 대응표본 T검정

창업 교육 전과 교육 후의 심리적 특성의 변화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일 모집단의 두 표본 분석 기법인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사용하였다.

<표 7>은 대응 표본 통계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제위치, 위험감수, 성취욕구, 모호성 수용, 창의성들의 변수의 평균은 교육 전보다 교육후가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대응 표본의 통계량

		Mean	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Pair 1	통제위치전	3.8535	158	.53207	.04233
	통제위치후	3.9347	158	.44441	.03536
Pair 2	위험감수전	3.4146	158	.69007	.05490
	위험감수후	3.4989	158	.60940	.04848
Pair 3	성취욕구전	3.9093	158	.51894	.04128
	성취욕구후	4.0345	158	.46328	.03686
Pair 4	모호수용전	3.6994	158	.56698	.04511
	모호수용후	3.8133	158	.52934	.04211
Pair 5	창의성전	3.4335	158	.57518	.04576
	창의성후	3.5781	158	.57109	.04543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창업 교육 전과 후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관한 대응 표본 T 검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교육전과 후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관한 표본 T검정 결과

		Paired Differences					t	df	Sig. (2-tailed)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95% Confidence Interval of the Difference				
					Lower	Upper			
Pair 1	통제위치지전 - 통제위치지후	-.08122	.63047	.05016	-,18029	.01785	-1.619	157	.107
Pair 2	위험감수전 - 위험감수후	-.08439	.88287	.07024	-,22312	.05434	-1.201	157	.231
Pair 3	성취욕구전 - 성취욕구후	-.12523	.67120	.05340	-,23070	-.01976	-2.345	157	.020
Pair 4	모호수용전 - 모호수용후	-.11392	.72248	.05748	-,22745	-.00040	-1.982	157	.049
Pair 5	창의성전 - 창의성후	-.14451	.74893	.05958	-,26220	-.02683	-2.425	157	.016

위 <표 8>에 의하면 성취욕구와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은 5% 유의수준에서 창업교육 전보다 창업교육 후가 변화가 있었다고 즉 성취욕구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모호성에 대한 수용력도 증가하였고, 창의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통제 위치와 위험감수 성향은 창업 교육 전과 창업 교육 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공분산 분석 및 가설 검증

가. 연령에 따른 공분산 분석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의 변형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효과를 설명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 적합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하고자 한다(한상태·강현철·허명희, 2009).

가설 2-1의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 통제 위치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후 통제 위치를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창업교육 전 통제 위치를 모수변수(Fixed factor)로, 연령을 공변량(Covariate)으로 적용하여 나타난 공분산분석(ANCOVA)은 <표 9>와 같다.

<표 9> 연령에 따른 통제 위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583a	5	.517	2.762	.020
Intercept	31.508	1	31.508	168.480	.000
통제위치	.716	1	.716	3.829	.052
연령	1.625	4	.406	2.172	.075
Error	28.426	152	.187		
Total	2477.205	158			
Corrected Total	31.008	157			

a. R Squared = .083 (Adjusted R Squared = .053)

연령에 따라 창업 교육 후 통제 위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표IV-9의 분산분석표를 살펴보면 공변량 연령에 대해 p-값(=0.075)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은 교육 전 후의 통제위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 2-1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 진다.

가설2-2의 연령의 따른 창업 교육 후 위험감수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표 10>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위험감수 성향은 F=1.232 로 P(0.269)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 다.

<표 10> 연령에 따른 위험감수 성향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952a	5	.590	1.621	.158
Intercept	55.622	1	55.622	152.737	.000
위험감수	.449	1	.449	1.232	.269
연령	2.569	4	.642	1.764	.139
Error	55.354	152	.364		
Total	1992.639	158			
Corrected Total	58.305	157			

a. R Squared = .051 (Adjusted R Squared = .019)

가설2-3의 연령의 따른 창업 교육 후 성취욕구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표 11>에서는 연령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성취 욕구는 $F=0.751$ 로 $P(0.388)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3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11> 연령에 따른 성취욕구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98a	5	.060	.272	.928
Intercept	37.907	1	37.907	172.521	.000
성취욕구	.165	1	.165	.751	.388
연령	.136	4	.034	.154	.961
Error	33.398	152	.220		
Total	2605.504	158			
Corrected Total	33.697	157			

a. R Squared = .009 (Adjusted R Squared = -.024)

가설2-4의 연령의 따른 창업 교육 후 모호성의 수용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표 12> 에서는 연령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성취 욕구는 $F=1.493$ 로 $P(0.195)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4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12> 연령에 따른 모호성에 대한 수용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059a	5	.412	1.493	.195
Intercept	41.170	1	41.170	149.236	.000
모호수용	.716	1	.716	2.596	.109
연령	1.284	4	.321	1.163	.329
Error	41.933	152	.276		
Total	2341.500	158			
Corrected Total	43.992	157			

a. R Squared = .047 (Adjusted R Squared = .015)

가설2-5의 연령의 따른 창업 교육 후 창의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표 13> 에서는 연령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창의력은 $F=2.981$ 로 $P(0.086)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5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다만 유의 수준 10% 수준에서는 연령에 따른 창의력의 변화가 교육 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연령에 따른 창의력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7.119a	5	1.424	4.909	.000
Intercept	39.680	1	39.680	136.812	.000
창의성	.865	1	.865	2.981	.086
연령	6.024	4	1.506	5.193	.001
Error	44.084	152	.290		
Total	2074.000	158			
Corrected Total	51.204	157			

a. R Squared = .139 (Adjusted R Squared = .111)

나. 학력에 따른 공분산 분석

가설 3-1의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의 학력에 따라 통제 위치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은 <표 14>를 살펴보면 학력에 따라 창업 교육 후 통제 위치의 변화는 $F=1.526$, $P(0.185)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14> 학력에 따른 통제의 위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1.483a	5	.297	1.526	.185
Intercept	32.570	1	32.570	167.674	.000
통제위치	.741	1	.741	3.817	.053
학력	.525	4	.131	.676	.610
Error	29.526	152	.194		
Total	2477.205	158			
Corrected Total	31.008	157			

a. R Squared = .048 (Adjusted R Squared = .016)

가설3-2의 학력에 따른 창업 교육 후 위험감수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표 15>를 살펴보면 학력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위험감수 성향은 $F=0.474$ 로 $P(0.492)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2는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15> 학력에 따른 위험감수 성향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065a	5	.413	1.116	.354
Intercept	57.454	1	57.454	155.280	.000
위험감수	.175	1	.175	.474	.492
학력	1.683	4	.421	1.137	.341
Error	56.240	152	.370		
Total	1992.639	158			
Corrected Total	58.305	157			

a. R Squared = .035 (Adjusted R Squared = .004)

가설3-3의 학력에 따른 창업 교육 후 성취욕구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표 16>를 살펴보면 학력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성취 욕구는 $F=0.594$ 로 $P(0.442)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3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16> 학력에 따른 성취 욕구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517a	5	.103	.474	.795
Intercept	36.952	1	36.952	169.281	.000
성취욕구	.130	1	.130	.594	.442
학력	.354	4	.089	.406	.804
Error	33.179	152	.218		
Total	2605.504	158			
Corrected Total	33.697	157			

a. R Squared = .015 (Adjusted R Squared = -.017)

가설3-4의 학력에 따른 창업 교육 후 모호성의 수용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표 17>에서는 학력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성취 욕구는 $F=2.747$ 로 $P(0.100)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4는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17> 학력에 따른 모호성에 대한 수용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332a	5	.466	1.701	.138
Intercept	38.644	1	38.644	140.995	.000
모호수용	.753	1	.753	2.747	.100
학력	1.556	4	.389	1.419	.230
Error	41.661	152	.274		
Total	2341.500	158			
Corrected Total	43.992	157			

a. R Squared = .053 (Adjusted R Squared = .022)

가설3-5의 학력에 따른 창업 교육 후 창의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표 18>를 살펴보면 학력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창의력은 $F=2.458$ 로 $P(0.119)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4는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18> 학력에 따른 창의성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495a	5	.499	1.557	.176
Intercept	38.233	1	38.233	119.307	.000
창의성	.788	1	.788	2.458	.119
학력	1.400	4	.350	1.092	.363
Error	48.709	152	.320		
Total	2074.000	158			
Corrected Total	51.204	157			

a. R Squared = .049 (Adjusted R Squared = .017)

다. 창업교육 횟수에 따른 공분산 분석

가설 4-1의 창업교육 횟수에 따라 통제 위치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횟수를 공변량(Covariate)으로 적용하여 나타난 공분산분석(ANCOVA) <표 19>를 살펴보면 창업교육 횟수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위험감수 성향은 $F=4.684$ 로 $P(0.032)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1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19> 창업 교육 횟수에 따른 통제의 위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519a	8	.315	1.647	.116
Intercept	25.969	1	25.969	135.822	.000
통제위치	.896	1	.896	4.684	.032
창업교육 횟수	1.561	7	.223	1.167	.325
Error	28.489	149	.191		
Total	2477.205	158			
Corrected Total	31.008	157			

a. R Squared = .081 (Adjusted R Squared = .032)

가설4-2의 연령의 따른 창업 교육 후 위험감수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표 20>를 살펴보면 창업교육 횟수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위험감수 성향은 $F=1.140$ 로 $P(0.287)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2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20> 창업 교육 횟수에 따른 위험감수 성향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3.111a	8	.389	1.050	.402
Intercept	41.864	1	41.864	113.015	.000
위험감수	.422	1	.422	1.140	.287
창업교육 횟수	2.729	7	.390	1.052	.397
Error	55.194	149	.370		
Total	1992.639	158			
Corrected Total	58.305	157			

a. R Squared = .053 (Adjusted R Squared = .003)

가설4-3의 연령의 따른 창업 교육 후 성취욕구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은 <표 21>을 살펴보면 창업교육 횟수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성취 욕구는 $F=0.826$ 로 $P(0.365)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3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21> 창업 교육 횟수에 따른 성취 욕구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750a	8	.094	.424	.905
Intercept	28.748	1	28.748	130.012	.000
성취욕구	.183	1	.183	.826	.365
창업교육 횟수	.587	7	.084	.380	.913
Error	32.946	149	.221		
Total	2605.504	158			
Corrected Total	33.697	157			

a. R Squared = .022 (Adjusted R Squared = -.030)

가설4-4의 연령의 따른 창업 교육 후 모호성의 수용 성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은 <표 22>를 살펴보면 창업교육 횟수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성취 욕구는 $F=0.877$ 로 $P(0.526)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4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22> 창업 교육 횟수에 따른 모호성에 대한 수용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2.485a	8	.311	1.115	.356
Intercept	31.569	1	31.569	113.326	.000
모호수용	.715	1	.715	2.568	.111
창업교육 횟수	1.710	7	.244	.877	.526
Error	41.507	149	.279		
Total	2341.500	158			
Corrected Total	43.992	157			

a. R Squared = .056 (Adjusted R Squared = .006)

가설4-5의 창업교육 횟수에 따른 창업 교육 후 창의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 <표 23>를 살펴보면 창업교육 횟수에 따라 창업 교육 후 창의력은 $F=3.037$ 로 $P(0.083) > 0.05$ 이므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5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어진다.

<표 23> 창업 교육 횟수에 따른 창의성의 변화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Corrected Model	5.606a	8	.701	2.290	.024
Intercept	31.859	1	31.859	104.104	.000
창의성	.929	1	.929	3.037	.083
창업교육 횟수	4.511	7	.644	2.106	.046
Error	45.598	149	.306		
Total	2074.000	158			
Corrected Total	51.204	157			

a. R Squared = .109 (Adjusted R Squared = .062)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5.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시 말하면,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이 창업교육을 받은 전과 수료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통제의 위치, 위험감수성향,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을 주로 다루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심리적인 특성인 창의성을 추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을 통해서 예비창업자의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의 심리적 특성에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 유의수준에서 창업교육 전과 교육 후를 비교해 볼 때 예비창업자의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을 받은 예비창업자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창업교육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창업교육 전후의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 영향에 대한 검증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과 교육 횟수에 따라 통제 위치와 창의성은 10%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에 따라서는 통제위치가 10% 유의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기적인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

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단기적인 창업교육도 예비창업자의 성취욕구, 모호성의 수용,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단기 창업교육만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부분에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연구의 방향으로는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변화가 실제 창업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한다. 즉 창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여 예비 창업자의 창업 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어떠한 심리적 특성 변화를 중점으로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창업교육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기존의 비정규 교육과정의 장기교육에 대한 성과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며, 향후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의 성과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 지적된 수도권과 비수도권(광역시, 시, 군)으로 나뉜 지역 환경에 맞는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연희(2007), 『기업가정신과 벤처기업 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연(2008), 『전문계 고등학교 BizCool(창업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완재(2007), 『창업자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와 관계", 『중소기업연구』, 제22권, 제1호, p.129.
- 한상태 · 강현철 · 허명희(2009), 『SPSS 분산분석』, 한나래아카데미.
- 황보운(2009), 『소상공서비스업종 경영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rockhaus, R. H.(1982),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Kent, C. A., Sexton, D. L. and Vesper, K. H.(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39-71,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ckhaus, R. H. and Horwitz, P. S.(1986), "The Psychology of the Entrepreneur", in Sexton, D. L. and Smilor, R. W.(Eds.), *The Art and Science of Entrepreneurship*, pp.25-48, Cambridge, MA: Ballinger.
- Cooper, A. C. and Gascon, F. J.(1995), "Entrepreneurs, Processes of Founding, and New-Firm Performance", in Sexton, D. L. and Kasarda, J. D.(Eds), *The State of the Art of Entrepreneurship*, Boston, MA: PWS-Kent Publishing.
- Gartner, W. B.(1989),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4, No.1, pp.27-38.

Exploratory study on a psychological traits changes by entrepreneurship short-term education

Lee, Seung Jae * · Hwang bo, Yun**

Abstract

This study intend to analyze effect on a change mental feature of founder received entrepreneurship short-term education called the successful foundation package. In other words, what kind of change the mental feature of founder before and aft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founder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e the locus of control, risk-taking propensity, need for achievement , ambiguity tolerance and specially new psychological trait, that is, creativity.

The result of paired T-test and ANCOVA on pre-founders who received Entrepreneurship short-term education which called successful business start-up package is that need for achievement , ambiguity tolerance and creativity among pre-found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re enhanced by Entrepreneurship short-term education.

However ANCOVA shows that there are n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hanges according to age, education, the number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eywords: education for start-up, prep entrepreneur, psychological traits, creativeness

* CEO, Friends Communication Co. Ltd., tmdwodl83@naver.com

** Faculty, Hoseo University, yun@hoseo.edu